탈레반, 인질 또 살해…남은 21명 운명은

미국 움직여야 추가희생 막는다

"맞교환 실패땐 나머지 인질들 순차 살해"
5일 美-아프간 정상회담이 협상 분수령

한동안 협상에 주력했던 탈레반 무장세력이 지난달 30일 끝내 한국인 인질을 추가 살해하면서 나머지 인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탈레반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아프간 정부에만 대화를 의지하는 상황이어서 인질 협상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희생자 더 나오나**=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면서 남은 21명의 운명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당장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두 번째 한국인 남성 인질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남성 인질을 살해하고 그 다음 여성 인질 차례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앞으로 인질 살해 주기는 점점 짧아질 것이며 오늘 인질 살해는 이런 순차적 살해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아마디 대변인은 추가 살해를 막기 위해서는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인질 협상과 처리 문제를 놓고 탈레반 강온파 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경파들이 잇단 초강수를 두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프간 정부에만 의지할 것인가**=아프간 정부를 통한 정부의 석방 교섭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해가 현지 가즈니 주(州)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입에서 '협상시한 연장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을 뿐 아니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을 예방, 인질 무사귀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요청한 뒤라 우리 정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테러범과의 직접 협상은 없다는 원칙하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교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석방교섭의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자 일각에서는 아프간 정부의 교섭력에 막연히 기대기보다는 독자적인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아프간 정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더욱 외교력을 모으거나, 탈레반 측과의 직·간접 교섭 채널을 독자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美-아프간 5일 정상회담 최대 분수령**=탈레반 무장세력이 인질들 육성을 잇달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건해결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미국의 개입을 끌어내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카르자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이번 인질사태 해결에 최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달 5~6일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탈레반 수감자 석방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물론 미국은 초지일관 '테러세력과는 타협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아프간에 인질과 탈레반 요원 간 교환을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탈레반의 요구 수용에 묵시적인 지지를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아랍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피랍 한국인 인질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달 30일 밤(현지시각) 독점 공개했다. 이 화면에 공개된 여성 인질은 어두운 곳에서 탈레반의 감시를 받으며 히잡을 쓴 채 매우 지쳐 보였다. /연합뉴스

수니파 무슬림 최고 지도자 인질 석방 촉구

전 세계 수니파 무슬림들의 최고 종교기관이자 교육기관인 이집트 알-아즈하르의 셰이크(종교 지도자) 압달라 무가위르 후세인(65)은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에 한국인 인질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은 수니파이며 수니파에게 이집트 알-아즈하르는 가톨릭의 바티칸 같은 존재다.

알-아즈하르의 2인자인 후세인 셰이크는 이날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비록 다른 종교를 가졌더라도 무슬림과 같이 대우하라고 코란(이슬람 경전)은 가르치고 있다"며 "아프간 형제들을 도와주러 간 한국인들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슬람은 평화와 관용의 종교"라고 지적하고 탈레반은 평화를 실천하러 간 한국인들을 인질이 아닌 손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서 오는 2일 열리는 제1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두번째 피살 심성민씨는 독립유공자 자손

아프간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성민(29)씨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 평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민씨의 할아버지는 경남 고성 출신의 독립유공자인 심재인(1918~1949)씨. 그는 1938년 일본 장기현(長崎縣) 소재 간조농학교 재학 중 일본인들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를 체험하며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한편, 2003년 ROTC 중위로 예편한 후 2~3년간 한 반도체회사에서 근무한 성민씨는 봉사활동을 결심하고 두 달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프간 봉사를 떠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밀려오는 복합리조트…위협받는 J프로젝트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때문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J프로젝트)사업이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J프로젝트 사업예정지와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새만금 지구에서는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검토되고 서해안권의 태안기업도시는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다 동남아 주변국가에서도 복합리조트 건설이 속속 추진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J프로젝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새만금 9천만㎡ 위락단지
태안기업도시 9월에 착공
동남아 카지노 건설 경쟁

◇**세계적 휴양지 꿈꾸는 새만금**=전북도는 새만금 지구에 37억 아시아 관광시장을 타깃으로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위락·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복합리조트 '레저파라다이스'건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지구 9천만㎡에 골프장 100개(18홀 규모)와 특급호텔, 고급 별장, 마리나, 레저스포츠 시설, 백화점, 면세점, 박물관 등을 설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새만금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김제 국제공항 재추진의 명분을 찾고, 동서횡단철도, 대규모 신항만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돼 J프로젝트와 서남권 발전계획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태안기업도시**=현대건설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원 1천516만㎡(455만평)에 관광·환경·첨단복합 기능이 어우러진 태안기업도시를 오는 9월 착공한다. 상주인구 1만 5천명을 목표로 총 9조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도시기반 시설과 부지조성을 마치고 2020년 시설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태안기업도시는 고품격 관광숙박시설을 갖춘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진다. 컨벤션센터,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고 총 6개 코스, 108홀 규모로 조성하는 골프장 복합시설 가운데 2개 코스를 세계 100대 수준으로 조성해 PGA 등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 복합리조트 붐**=마카오에 495만㎡(150만평)의 카지노· 호텔컨벤션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세계적인 카지노그룹 미국 '샌즈'사는 오는 8월 28일 1차로 객실 3천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베네시안 리조트 호텔을 개장한다. 이 단지에는 앞으로 20여개의 호텔과 복합 위락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56만㎡·투자액 35억 달러)와 센토사섬(49만㎡·34억 달러) 두 곳에 카지노와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개발 중이다. 홍콩은 지난 2005년 개장한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란타우섬을 관광중심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양공원에 7억 달러를 투입해 확장 개발하고 있다.

베트남은 푸엔 관광특구에 카지노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태국은 외국 카지노 업체와 제휴해 위락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는 남부 조호르 지역에 월트디즈니와 제휴해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 주변국가에서 대대적인 복합리조트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신흥 부자들의 레저욕구 증가에 따른 지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계획된 J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 대처가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국내·외 복합리조트 건설 현황**

위치	내용	비고
새만금지구 (전북)	• '레저 파라다이스' 추진 • 골프장 100개, 특급호텔, 마리나 등	J프로젝트와 인접 위협 요소
태안기업도시 (충남)	• 고품격 관광숙박, 컨벤션 • 세계 100대 수준 골프장	9월 착공
마카오	• 카지노·호텔컨벤션단지 • 8월 28일 1차 호텔 개장	중국·동남아 리조트 중심
싱가포르	• 마리나 베이 • 센토사 섬 ┐ 카지노+리조트	정부 적극 지원
홍콩	• 란타우(디즈니랜드) 섬 중점개발 • 해양공원 확장	
베트남	• 푸엔관광특구	카지노 리조트
태국	• 카지노+리조트 추진	호주·미국 카지노 진출의사
말레이시아	• 조호르(테마파크)	월트디즈니와 제휴